

IBK저축은행 모바일 App출시 기념 특판

☞ 권오경 기자 | Ⓞ 승인 2018.11.01 11:00



김성미 IBK저축은행장

[업코리아=권오경 기자] IBK저축은행(은행장 김성미)은 지난 10월 29일 스마트폰으로 예금과 대출을 한번에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App '참 좋은 बैं킹'을 출시하고 모바일 App을 통하여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판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 좋은 बैं킹' 출시 기념 정기적금인 "오~개이득 적금Ⅱ"은 지난 출범 5주년 기념 특판 당시 5일 만에 완판된 "오~개이득 적금"의 후속상품으로 기간에 따라 3.5%~4.5%(36개월~60개월 세전, 연)의 특별금리를 지급하며, 1인 1계좌로 월 1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해당 특판상품은 모바일 App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36개월 1,000억원, 48개월 500억원, 60개월 1,000억원 한도로,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또한 서민금융 전용대출 3종셋트인 햇살론, 사잇돌2, 참~좋은론을 한번에 비교 조회하고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 App 전용 '일거3득 안심대출' 시스템도 도입하였다.

IBK저축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App '참 좋은 banking' 출시를 기념하여 '고객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특판 상품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BK저축은행은 IBK기업은행이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설립된 가교저축은행(예술)을 2013년 7월 인수하여 새로이 출범하였으며, 다양한 정상화 노력을 통해 출범 1년만인 2014년 6월말에 흑자전환(당기순이익 10.7 억원), 출범 5년만인 2017년 12월말에 누적적자 560억원을 조기 정상화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저작권자 © 업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오경 기자

IBK저축은행, 모바일 앱출시 기념 특판

류영상 기자 입력 : 2018.11.01 13:53:34

IBK저축은행은 `참 좋은 बैं킹`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하는 고객 대상으로 특판상품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참 좋은 बैं킹 출시기념 정기적금인 `오~개이득 적금Ⅱ` 가입 시 기간에 따라 3.5~4.5%(36개월~60개월 세전, 연)의 특별금리를 지급한다. 1인 1계좌로 월 1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가입 가능하다.

해당 특판상품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36개월 1000억원, 48개월 500억원, 60개월 1000억원 한도로,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또 서민금융 전용대출 3종 세트인 햇살론, 사잇돌2, 참~좋은론을 한번에 비교조회 하고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전용 `일거3득 안심대출` 시스템도 도입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